

## 동서학원 설립 55주년 및 개교 28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간담회 열려



▶동서학원 설립 및 개교 기념 축하식

2020년 5월 28일은 동서학원 설립 55주년이자 우리 대학교 개교 28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동서학원 설립과 개교를 맞이한 의미로 기념 감사예배 및 간담회를 열었다.

동서학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해 지역사회와 나라에 큰 기여를 하는 교육 기관으로 뿌리를 굳게 내렸다. 또한 동서학원은 이러한 3개의 대학을 설립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5월 28일에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한 동서학원은 박동순 이사장을 비롯한 동서학원 법인 이사진, 3개 대학 전·현직 총장, 21세기 포럼 이사, 자문 목사, 대학 교회

담임 목사 및 장로, 21세기 포럼 이사, 기독교 언론인들로 구성된 축하를 진행했다. 축하하는 경남정보대 역사기념관에서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 5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간담회'를 열고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1부 감사예배에서는 최훈규 대학 교회 담임 목사의 기도에서 박동순 부전 교회 목사가 '변화'라는 제목으로 기도가 진행됐다. 이어 2부 간담회를 진행하며 박동순 이사장은 "동서학원은 반세기를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는 자의 분이 되는 학원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차세대에게 바른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다"라고 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박동순 이사장은 "동서학원은 설립자 장성만 목사의 신앙적 소명이셨던 교육기관을 통한 참된 진리의 가르침과 사회적 치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착실하게 실천해 오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주님께서 따뜻하게 하나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오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목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밭길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갈아엎었던 땅을 갈아엎고 가시밭길에 씨를 뿌리자 말아야 할 시점에 서 있

다"라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동순 이사장은 "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신 사도바울의 말씀이 이 시대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이제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앞을 향해 나아가길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덧붙이며 꿈과 용기를 가지고 새 창조를 시작해야 한다는 그의 포부를 밝혔다.

이에 장재국 총장은 "우리 대학은 5월 초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하며 동서학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 부산 LINC+사업단, 창업 교육 동맹

실시간 온라인으로 창업 교육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창업 교육

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부산권 6개 대학 LINC+사업단이 창업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다. 교육 진행 내용은 부산권 LINC+사업단 연합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으로 운영했다.

우리 대학은 자격증 취득과 4차시대 산업혁명,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이번 실시간 화상강의를 통해 교육했다.

LINC+사업단은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진 창업 지원 양성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창업 교육에 기여하는 사업단이다. 학생들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대학들과 상호적인 협조 체계를 운영한다.

LINC+사업단 중 우리 대학은 '실시간 온라인 창업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5월 21일에 체결했다. 이는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함께 참여한 대학은 우리 대학,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 총 6개 대학이다. 협약 내용으로는 실시간 온라인 창업교육의 표준화 모델 구축, 실시간 온라인 창업캠프의 기반 구축 등 중심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프로그램은 기존 오프라인 수업의 제약 없이 ▲창의융합 교육 특성화 ▲기

술 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고도화 등 3단계의 프로그램이 참여 대학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장으로는 전문가 책임 멘토링, 창업전문가 초청 특강 및 창업 시제품 프리마켓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5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학교별 최대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한다.

LINC+사업단의 황기현 부단장은 "우리 대학은 LINC+사업단은 2019년부터 경쟁을 넘어 협력을 목표로 부산권 ESI 공동 개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꾸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올해는 오프라인 수업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 환경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 간 연합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 대학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LINC+사업단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화합으로 학교와 학생 간에 큰 성과를 낼 것"이라는 앞으로의 열정 넘치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으로도 창업 교육시스템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발전해나감으로써, 변화무쌍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바라는 바이다.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 동서 K-Move스쿨 특강 진행

해외 취업 인재 양성 쾌거



▶K-Move 스쿨 오프라인 설명회

우리 대학교는 K-Move스쿨 프로그램 특강을 5월 28일~29일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K-Move스쿨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대 규모로 운영하면서 해외 취업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10년 연속으로 운영 중인 K-Move스쿨 프로그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년 해외 진출 사업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일정 기간 맞춤형 교육을 받고 해외 기업으로 취업하게 된다.

프로그램 과정으로는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20명) ▲미국 산업그래픽 디자이너 양성과정 (20명) ▲미국 무역물류 프랜차이즈 양성과정 (20명) ▲미국 IT엔지니어 양성과정 (15명) ▲일본 IT엔지니어 양성과정 (15명) ▲(일반과정) 베트남 경영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정 (15명)으로 총 6개를 모집한다.

K-Move스쿨은 각 과정마다 전자자격 취득과 세부 일정 다르다. ▲미국 연수 기간: 2020.7.31~2021.2.25 ▲일본, 베트남 연수 기간: 2020.7.31~2021.3.24

K-Move스쿨을 연수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국내외 교육비 전액 (600시간-자격증 수업, 어학수업 등)과 교재비, 시험 응시료, 미국 비자 수수료 및 취업 일부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추가 혜택으로는 조건 충족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 경력 지원단에서 지원하는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조건충족 시 400~800만원),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월별 출석률이 80% 이상 시) 6개월간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로, 본인부담으로는 비자수수비 및 취업관리비, 편도 항공료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접수 방법으로는 ▲1단계 (메일 접수) ▲2단계 (웹드상 온라인 접수/필요 서류: 참가 신청서, 개인 정보 동의서, 영문 이력서, 영어성적확인서)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면접 일정은 5월 말에서 6월 초 ▲합격자 발표는 6월 중이다. 연수생 선발 기준으로는 ▲전공 성적 20% ▲외국어 30% (교내 cbt 성적 혹은 토익 성적) ▲면접 50%로 면접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에 K-Move스쿨 관계자 측에

서는 면접을 볼 때 해외 취업 의지와 영어 회화 능력, 향후 계획 중, 향후 계획을 가장 큰 비율로 본다"고 밝혔다. K-Move스쿨에 관한 상세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다.

•K-Move스쿨로 해외 취업을 성공한 우수 사례

① 미국 패션 스페셜리스트 과정을 거친 정은준 학생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에 위치한 'Oddi clothing' 회사에 근무) : K-Move스쿨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② 일본 산업 그래픽디자이너 과정을 거친 김해지 학생 (린 히스트에 위치한 H mart 분사 디자인팀에서 인턴으로 근무) : 이 과정을 통해 내 인생에서 더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선택할 미래에 더 많은 일들이 기대된다.

③ 일본 IT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거친 조영준 학생 (일본 IT 계열 회사에 취업) :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본 취업이 K-Move스쿨에 참가하여 해외연수 자격증과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꿈만 같았던 일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 사례를 제외하고도, 미국 무역물류 프랜차이즈, 미국 IT 엔지니어, 일본 IT 엔지니어 등 K-Move스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다.

이와 같이 K-Move스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양성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학생들의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바이다.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 디자인 대학, '구포 맥주' 브랜딩

LINC+사업단 클래스 셀링으로 성과



▶디자인 대학 김수화 교수와 학생 7명이 만든 '구포 맥주'

우리 대학교 LINC+사업단의 클래스 셀링 수업으로 디자인 대학 김수화 교수와 학생 7명이 '구포 맥주' 브랜드를 제작했다. 이번이 우리 대학의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에 성과를 보여준 7명의 학생들은 김후정·남건비·박가빈·정이슬·제갈윤호·이현진·최명지 동문이다.

김수화 교수가 이끄는 7명의 학생들은 부산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지역 브랜드로 출범하는 '구포 맥주' 브랜드의 디자인을 의뢰받아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 디자인은 북구에서 진행한 총 12회의 산학 프로젝트 수업과 10년 동안 광복동 크리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비롯해 지역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했다. 또한 북구와 워낙 계약을 맺은 부산 최초의 수제 맥주 업체인 '갈매기 브루잉' 맥주의 레시피 개발과 생산을 맡았다.

우리 대학 측에서는 '구포 만세 329'를

위한 브랜드 디자인을 총괄 개발했다.

학생들은 구포에서 일어난 만세운동과 일제강점기 이후 밀의 집산지라는 역사가 있다는 점을 착안해 독립 정신을 담은 첫 맥주의 이름을 '구포 만세 329'로 지었다. 이러한 지역 맥주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재배한 밀로 맥주를 사용했다.

'구포 맥주' 밖에 적혀있는 B.는 해석적인 구포 거북이 캐릭터가 입에서 무량한 맥주를 쏟아내는 민화적 표현으로, 배경에는 북구와 구포의 생태역사 문화 콘텐츠를 스토리텔링 했다.

'구포 만세 329' 밖에 적혀있는 라벨은 옛날 독립신문 포맷에 최근 수제 맥주 디자인 트렌드를 결합한 타이포그래피로 스토리텔링을 강조하고, 브랜드 디자인 전반에 뉴트로 감성을 녹여 냈다.

'구포 만세 329' 맥주 안에는 흡을 많이

넣어 복합적인 향과 쓴맛을 더했다. 그뿐만 아니라 특유의 열대 과일 향을 첨가하여 만세운동에 대한 강인함, 성취, 독립 성취의 의미를 표현했다.

이 맥주는 북구 구포동의 수제 맥주 펠 '밀당 브로이'와 '갈매기 브루잉 부산' 등 6개 지점에서 맛볼 수 있으며, 구포나루 축제 등 지역 축제에도 판매될 예정이다. 북구는 "주세법이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시중 대형 할인매장, 편의점 등에서도 구포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고, 오는 겨울쯤 구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또 다른 맥주를 출시하고 양조장 등도 만든다"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대학 김수화 교수는 구포 맥주에 대해 "기업의 수준 높은 수제 맥주, 노포 구포의 헤리티지와 북구의 의지, 대학의 창의적 디자인이 시너지를 발휘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북구의 아름다운 역사 문화 콘텐츠는 신도심도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이며 원도심의 저력이다. 요새 서울에서 뜨는 지역은 대부분 옛 풍경이 남아 있는 거리에 신 소비문화 콘텐츠가 결합하는 양상으로, 뉴트로 감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매력에 끌려 도심에 모여든다. 구포 맥주 브랜드 디자인은 눈으로만 봐도 이러한 구포 맥주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이번 기초단체와 업체, 지역 대학이 힘을 합쳐 성과를 낸 '구포 만세 329' 맥주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무궁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 세계 최초 온택트 원격시스템 플랫폼 개발

(Online+Un-tact)

## 원격강의 질 향상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다



▶플랫폼 개발 참여자들의 기념식

우리 대학이 LINC+사업단에서 온택트 원격시스템 신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개발했다. 현대건설(주)과 채용형 AIIISUN 산학 트랙을 운영하면서 참여기업으로의 취업 활성화를 더불어 원격강의의 질을 높인 것이다. 온택트 원격시스템 플랫폼은 국내외 국외를 통틀어 처음이기에 감회가 새롭다.

'온택트(On-tact)'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문화현상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언택트(Un-tact)'에서 진화된 개념이다. 비온라인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던 언택트에 온라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더한 것이다. 두 기관은 이러한 온택트를 통한 원격 기술을 이용하여 플랫폼을 개발했다.

우리 대학 LINC+사업단이 운영하는 '채용형 AIIISUN 산학 트랙'은 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산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 교과목을 폐기지로 구성된 전공 심화 모듈과 문제 해결을 위한 비교과로 구성된 융합적이고 복합적

인 프로그램이다. 우리 대학 건축공학과는 현대건설(주) 기술교육원과 2020년 3월 6일에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건설 전문 인력 양성 트랙을 공동 운영하면서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자격증 총장과 현대건설(주) 기술교육원장의 인증서를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더하여 본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매년 10명을 이번호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시키기로 약속했다.

우리 대학 건축공학과 현대건설(주) 기술교육원은 학교 내의 '교내 현장시스템 (IFS, In-school Field System)'을 사용하여 랜선 기반의 실시간 멀티 화상 원격강의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그룹인 전공 교수, 채용형 AIIISUN 참여기업(현대건설, 힐 앤지니어링, 씨엔 피지인) 전문가 그리고 소수 학생으로 구성됐다. 이 들뿐만 아니라, ZOOM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는 국내 및 국외 현장을 다중적



▶ZOOM을 활용한 국내 및 국외 현장 학생들과 토론 수업 진행 현장

으로 연결하여 다수 학생이 공통기술이라는 주제에 대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최근 우리 대학 LINC+사업단에서는 비대면 원격강의를 통한 참여기업과 공동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원격강의에서 현장의 실무기술을 공유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 5G를 사용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교육의 질 높은 수업과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동시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키워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수업의 집중을 도모하고 있다. 랜선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멀티 원격강의 플랫폼은 LINC+사업단에서 6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원격기술을 확보했다. 수업방법론, 시스템 및 4차 산업혁명 장치 활용기술 등이 포함됐다.

LINC+사업단장 조대수는 "동서대 내의 IFS 공간을 활용한 실무형 원격화상교육을 앞으로도 다채롭게 구성해 애프터 코로나(After Corona)를 대비한 온라인 원격강의를 미래형 대학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인 간격 유지가 필요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해오던 일상의 업무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됐다. 그렇게 등장한 시스템이 원격시스템이다. 정부도 온택트 트렌드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원격강의 산업 육성과 디지털 산업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 언택트 소비·문화, 원격기반 사업 등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하여 미래기술 수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대학과 현대건설(주)이 개발한 온택트 원격시스템 플랫폼은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원격강의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드론을 이용한 해외 현장을 생생히 연결함으로써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산업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여원 기자 hanyeowon0329@gmail.com

# 세계를 넘어선 4명의 WINNER

## 세계 3대 광고제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위너로 선정되다



▶수상을 거머쥔 디자인 대학 4명의 학생

우리 대학의 이지수, 강경옥, 김태현, 김명주 등 4명의 학생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한껏 과시했다.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New York Festival) 광고 부문에서 Winner로 당당히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수상작은 위 4명의 학생과 링크사업단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인 컨셉츄얼플래닝 수업(교수 류도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수상자 이지수(CA 루트 3년) 학생은 "상을 받았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 뉴욕페스티벌 광고제에서 수상한 결과는 과분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협업으로 많은 깨달음과 배움이 있었다. 여태까지 여러 시도와 실패를 겪어오면서 가졌던 경험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수상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행객들이 여행을 끝낸 후 부족한 여행용 가방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옷들을 숙소나 여행지에 놔두고 간다.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은 해마다 1,700만 톤에 달하며 그 비율은 전 세계 쓰레기 30%를 차지한다. '에어비엔비(Airbnb)'를 활용한 'Dressbnb'는 이러한 쓰레기 대량 발생 문제를 막는다.

수소속속하는 손님들은 엠의 정해진 규칙을 통해 자신의 옷을 등록하면, 숙소

호스트를 통한 품질의 상태를 간단하게 식별 후 상품으로 등록된다. 등록된 이후에는 옷이 마트의 상품과 같이 숙소 내에 등록되어 다른 손님들이 방문하였을 경우 그 옷을 빌리거나 구매할 수 있다. 영상에선 이러한 Dressbnb를 통하여 짐을 덜어냄과 동시에 옷이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The New York Festivals IAA'의 주최로 설립되어 1957년부터 개최된 뉴욕페스티벌 광고제는 비방송 매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칸 국제광고제, 클리오 광고제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역사 깊은 세계적인 광고축제이다. 광고제 출품 분야는 텔레비전·영화·광고·잡지·신문·광고·라디오·광고가 있으며, 50여 개국에서 광고와 콘텐트, 홍보 제작물 등이 출품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우리 디자인 대학이 수상 경력을 거머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독일 Reddot Award에서 무려 7점이 Winner로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에서 4년 연속 총 4개의 산업특성자원부장관상을 받으며 세계 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디자인 대학 이름을 확실히 새겨 놓았다. 앞으로 우리 대학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디자인 대학 학생들의 무궁무진한 활약이 기대된다.

한여원 기자 hanyeowon0329@gmail.com

# 관광학부, 산학공동연구 통해 관광객 중복 측정 문제 해결

## 안면인식 무인 계측기 개발하다



▶관광학부 학생들

우리 대학 관광·마이스(MICE) 센터 산업 단지 캡처 조성 사업단(단장 홍정화)과 ㈜테크트리 컴퍼니(대표 김성민)가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울산대교 전망대에 안면인식 무인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얼굴이 중복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이목을 끌었다. 기존 울산대교 전망대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 계측기는 동일 인물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관광객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값을 처리하지 못하여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얼굴인식에 대한 중복 측정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 대학과 ㈜테크트리 컴퍼니는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 공동연구개발을 시작했다. 두 기관은 헤드 카운팅(Head Counting) 방법과 연관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광객 수를 자동으로 측정할 뿐만 아니라 안면인식 기술이라는 추가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동일

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날 시에 카운트 가 겹치지 않도록 하여 관광객의 수가 겹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단순 인원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방문자의 성별, 연령대를 측정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포함됐다. 이는 후에 울산대교를 이용하는 방문자에 대한 구체적인 빅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바탕으로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울산시 동구청(구청장 정전석)에서 담당하고 있는 울산대교 전망대는 한국관광공사 부산 울산지사(지사장 조윤미)의 강소형 잠재적인 관광지로 선정되어 2년에 걸쳐 다양한 컨설팅을 받으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2년의 꾸준한 개발로 얻은 안면인식 무인 계측기를 설치함으로써 성과를 실 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그에 따라

5월 25일 서면으로 각 4개의 기관은 기술 트라 겹치지 않도록 하여 관광객의 수가 겹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단순 인원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방문자의 성별, 연령대를 측정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포함됐다. 이는 후에 울산대교를 이용하는 방문자에 대한 구체적인 빅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바탕으로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 연구개발을 진행한 우리 대학 관광학부 홍정화 학부장은 "관광객 수의 정확한 실시간 측정과 성별·나이 파악 기술을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개발은



▶울산대교에 설치된 안면인식 무인 계측기

관광과 ICT가 결합한 솔루션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며,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데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구 또한 이를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정책 및 마케팅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전국 '야간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울산대교 전망대에 대하여 야경 관광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기대하고 밝혔다.

우리 대학 관광·MICE와 ㈜테크트리 컴퍼니 간의 공동연구로 개발된 안면인식 무인 계측기는 관광객 카운트에 난항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울산대교 전망대만이 아니라, 관광사업 전체에 효과적인 결과를 널리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의 첫 성과를 발돋움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도 지속될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여원 기자 hanyeowon0329@gmail.com

# 브런치 미니 취업특강 개최

##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듣는 취업특강



▶'자존감 향상 수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는 모습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주최하는 '브런치 미니 취업특강'이 6월 5일에 처음 동서대 스텝센터 플라자 3층에서 진행됐다. 브런치 미니 취업특강이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달 취업과 연관되는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교외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이다. 매달 한 번씩 개최되며 취업과 진로 준비를 위한 주제로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으며 고민을 나누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은 '자존감 향상 수업'을 주제로 한국 강연 협회 전문가 회장이 참석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일부 학부를 제외한 많은 학부가 대면 강의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도 약 20명의 많은 학생이 참석하여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문기 회장은 자존감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 피해의식, 타인과의 비교를 들어 어찌해서 사람들은 항상 의기소침해지고 끝없이 약해지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존감 향상 해결 방법을 소개했다. 정문기 회장은 특강을 진행하는 동안 참석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되새겨 주면서 두 시간 동안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정문기 회장은 이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하는 말의

힘과 마음가짐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의 인생의 성취를 위해 주위의 사람을 응원하며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단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봄이 찾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본 특강에 참석한 한 학생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동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는데, 한 번 과거를 되돌아보았으로써 자신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시간을 내서 참석하기를 잘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예정된 일정에 따르면 7월에 '해외 취업 이야기'로 진행될 예정이며 ▲9월 '현직자가 알려주는 합격의 기술' ▲10월 '내에게 딱 맞는 퍼스널 컬러 진단' ▲11월 '합격자소서와 합격 면접 노하우(Know-How)' ▲12월 'PT&말하기 기술'로 달에 한 번씩 총 다섯 번의 특강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8월은 더운 날씨를 고려하여 특강을 진행하지 않는다. 매달 대학 일자리 센터의 공지를 통해 프로그램 참석 인원을 받을 예정이며, 대학 일자리 센터 앱 'I'M READY'에서 로그인 후 전화번호 입력을 통해 간단한 신청이 가능하다.

한여원 기자 hanyeowon0329@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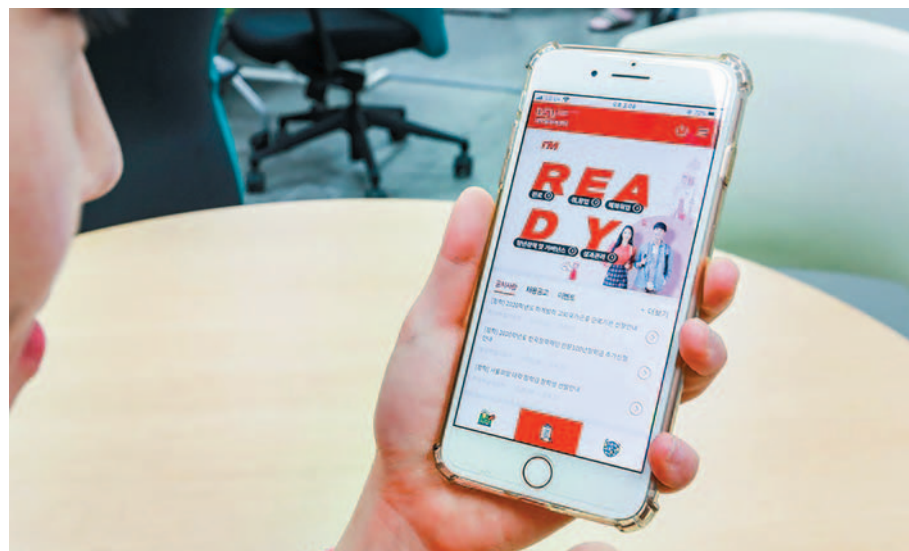


# 대학 일자리 센터 I'M READY 애플리케이션 오픈!

## 청년들의 취업·창업 돕기 위해 운영



▶ 대학 일자리 센터 단체사진



▶ I'M READY 애플리케이션 사용 모습

지난 5월 11일 동서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I'M READY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제작하여 정식 오픈하였다. '대학 일자리 센터 APP'은 동서대학교만의 차별화 및 전문화된 진로 및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신청 및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채용정보 제공, 진로취업컨설팅, 청년 정책 홍보 등이 담겨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API 시스템을 활용한 진로/직업검사 및 지역 중소기업 검색 등 구직자가 원하는 취업 정보를 웹툰 서비스를 지원하며, 재학생·졸업생 등의 진로,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자 진로·취업 프로그램 신청, 취업 컨설팅 예약, 워크넷 API 직무분석 기업분석,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기능들이 담겨있다.

이를 기념하여 13일부터 29일까지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해당 이벤트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청년들의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이용되며, 1·2학년용 진로설계, 3·4학년용 취업 준비, 졸업생·지역 청년용 경력 개발 총 3가지 분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동서대학교 대학 일

자리 센터' 검색 후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학번/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외부인일 경우 회원가입)을 하면 애플리케이션 내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 센터 APP'를 다운로드 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가 되며,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 5세대 1개, 갤럭시탭 1개, 에어팟 또는 갤럭시 버즈 1개, 랜덱박스 50개의 상품이 증정된다.

곽준식 대학 일자리 센터장은 "본교 대학 일자리 센터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mismatch와 구직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서대 학생과 지역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알고 자신 있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학 일자리 센터(학생 취업지원처)는 생활지원, 진로지원, 취업지원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 여러 산하 부서가 존재하는 학생들의 생활/진로/취업에 대한 고민을 한자리에 해결할 수 있는 웹툰 서비스 창구이다.

취업 지원지원처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탈무드(TalMUD)'라는 동서대만의 진로지도 체계를 가지고 있다. '탈무드(TalMUD)'는

재능을 찾고(Talent Search)-동기에 대한 자극을 받아서(Motivation)-앞으로 진로를 준비해서(Undertaking)-목표를 달성한다(Dream comes true)는 뜻이며, 학년별 단계 및 프로그램 등이 나누어져 있다. 1학년은 재능 탐색단계로 적성을 고민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은 ▲직업적성검사 ▲성격유형검사 ▲심리검사가 있으며, 진로취업상담으로는 ▲자기탐색 컨설팅 ▲취업목표 설정이 있다. 2학년은 동기부여 및 진로설계 단계로 진로를 고민한다.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은 ▲달란트의 진로 ▲여성과 진로 ▲커리어 코칭이 있으며, 진로 취업상담으로는 ▲진로 및 취·창업 컨설팅 ▲기업 및 직무분석이 있다. 3학년은 실용단계로 취업을 준비한다.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취업과 진로 ▲기업탐방 ▲현직자 멘토링이 있으며 진로취업상담으로는 ▲취업교육 컨설팅 ▲여대생 진로 취업 상담이 있다. 마지막 4학년은 목표 달성 단계로 실전 취업을 준비한다.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일학습병행제 ▲IPP 장기현장체험학습 ▲K-MOVE 스텝이 있으며, 진로취업상담으로는 취·창업 지원 컨설팅 ▲해외취업 컨설팅이 있다.

동서인의 학문적, 지적 발전을 돕고 대학 내의 건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에는 학생 복지팀, 장학팀, 사회봉사 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보건실, 학생생활 상담 센터, 슬루션 데스크가 있으며 ▲진로지원에는 달란트 개발 센터, 여대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여성,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비전 수립과 생애설계, 구체적인 진로설계와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지속적인 커리어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대생 커리어개발 센터가 있다. ▲취업지원에는 국내 취업지원팀과 해외취업지원팀으로 나누어 취업관련 정보 제공과 취업 관련 정부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국내외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 지원센터가 있다.

2020년 1학기에는 2020 인사부서장 초청 특강, 기업 초청 산학 간담회, 브런치 미니 취업특강, 학부/전공별 맞춤형 취업 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2학기에는 해외 취업특강(영어반, 일어반), 기업가진 특강, 학부/전공별 맞춤형 취업특강, 1 DAY NCS 교내 캠프, 직무체험 박람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취업클리닉, 진로/취·창업도서 대여, 취업전략 클래스 등은 학생들의 취·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 상시 운영한다.

김민경 기자  
rudvmfhelp@gmail.com

### ■ 학과별 Q&A 인터뷰

#### 자랑스러운 글로벌 리더, 동아시아학과 인터뷰

Q.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4학년 김보현입니다.

Q. 동아시아학과는 무엇을 배우나요?  
A. 동아시아학과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총 3가지의 언어는 물론, 일본과 중국 문화, 이에 더해 삼국(한, 중, 일)의 역사와 관습들도 공부하면서 한 중일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살기 때문에, 동아시아학과에 신입생으로 들어오셨다면 집이 부산에 거주하시더라도 일본,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동서대학교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입주하여 같이 생활하셔야 합니다. 3개의 방이 있는 작은 호실에서 국적이 다른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모르는 언어를 서로 배워 나가고, 다른 생활 문화에 적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Q. 동아시아학과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A. 특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학년부터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기초부터 천천히 배워 나가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 비해 많은 교육 양에 압박 느낄 적이 있어요. 3개의 언어를 동시에 배우나가야 하기 때문에 공부의 양이 많습니다. 또 학생이 이해하고 있느냐 매우 시험을 치기 때문에 동서대학교에 온 기분이었죠.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2번째는 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한국의 동서대학교, 일본의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교, 중국의 광둥 외어 무두대학, 3개의 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어 2년 동안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본, 중국의 대학을 2년 동안 갔다 온 뒤 이제 4학년이 되어 오랜만에 동서대에 오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네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학과는 1년에 20명씩 뽑기 때문에, 사람도 적어 금방 20명 다 진학할 수 있고, 성격이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GLLP(Global Living-Learning Program)이 있습니다.

Q. 2. 3학년 때는 해외 활동(유학)이 필수라 말씀해 주셨는데 학과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A. 동아시아학과에서 학생 생활에 대해 해외활동 자금을 지원해 주며, 1학년 때 학과시험 성적을 가지고 성적 우수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유학 장학금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Q. 동아시아학과는 주로 어느 직업군으로 취업을 하나요?  
A. 17학년이 지금 4학년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학과는 일본어, 중국어, 그 나라의 문화를 전문적으로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권의 스튜디언스, 국제기구, 외국의 호텔 취업, 매스컴, 교육기관, 다국적 기업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여 취업의 길이 넓고, 혹은 일본이나 중국의 대학원으로도 갈까 고민하고 있는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일본의 IT기업이나 호텔 쪽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동아시아학과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A. 어딘가로부터 들었거나 보았던 청춘과 낭만이 흘러넘치는 1학년의 대학 캠퍼스 생활은 동아시아학과에서는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힘든 1학년의 생활을 동서대학교에서 보내신 다음, 2, 3학년 때의 외국 생활은 1학년의 힘들었던 생활을 잊게 해주는 하나의 선물로 다가올 것이니 잘 기억내셨으면 합니다.

Q. GLLP(Global Living-Learning Program)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A. 동서대학교에 다니는 일본, 중국

정승환 수습기자  
dkfld12372@gmail.com

## 취업난 속 온라인 자격증

### 온라인으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 알아보기



▶ 온라인 수업 듣는 모습

▶ 사진출처-픽사베이

요즘 취업하기 위해서는 다들 자격증이 필수라고 말한다. 가볍게는 한 개부터 시작하여 3개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취업생(취업 준비생)도 많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러 합격 점수에 도달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관련 수업을 직접 들으러 가거나, 시험 등을 오프라인으로 치러 갈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 자격증을 위해 많은 시간 혹은 비용이 부담스러운 취업생들에게는 '온라인 자격증'이 선호된다.

온라인 자격증이란 수업과 시험 모두 온라인으로 치러지며, 취득 가능한 자격증을 말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버스 혹은 지하철 안에서 영상 수업을 들어도 되고, 새벽에 영상 수업을 들으며 공부해도 된다.

심리상담사 과정으로는 많은 심리적 압박감과 고민을 지니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심리 상담 전문가 과정으로는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한 노인복지심리 상담을 주도하는 노인심리상담사 1급, 미술치료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무의식을 의식화하며, 자아 성장을 촉진하는 미술심리상담사 1급,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및 유지시키기 위해 음악을 이용하여 심리

분석 및 상담하는 음악 심리상담사 1급,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춘 다양성과 소통의 역할을 주도하는 다문화 심리상담사 1급, 아동의 심리를 파악하여 지도해 주는 아동심리상담사 1급, 도형 그리기를 통해 각자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상태를 발견하여 상담하는 도형심리상담사 1급, 올바른 성격과 행동을 지도해 주는 교류분석상담사, 인지행동치료법을 기반으로 우울증 뿐 아니라 사회공포증, 강박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만성적인 대인관계 곤란을 유발하는 성격 문제 및 부부갈등에 대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심리적 문제 해결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인지 행동 심리 상담사 등이 있다.

전문화 전문가 과정으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지도하는 학교 안전지도사 1급, 의료진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코디네이터, sns를 활용하여 마케팅, 브랜드 매니징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sns 마케팅 전문가 1급, 커피 제조에 관련된 과정과 급변하는 커피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바리스타,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

적 가치관을 통해 다양한 사고력을 키우는 한국사 지도사, 교육마술을 통해 창의력 개발, 발표력 및 집중력 향상 등을 해주는 교육마술 지도사 등이 있다.

복지 전문가 과정으로는 개인 및 부부, 나아가 가족 전체를 상담치료하는 가족 상담사 1급, 지역아동교육 및 보육교사들의 심신의 건강과 탐구심의 균형 잡힌 발달 향상을 지도하는 지역아동교육지도사 1급, 부모들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을 위해 부모교육 상담을 하는 부모교육상담사 1급, 인성교육을 본질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기관에서 전문 지도자와 상담사로 활동하는 인성지도사 1급 등이 있다. 방과 후 전문가 과정으로는 2018년부터 전국 초, 중, 고교에서 코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망 밝은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SW 코딩 지도사, 신뢰감 및 호소력 있는 스피치를 구성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스피치지도사, 건강하고 활기찬 리더로서의 자질을 겸비하여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잠재되어 있던 실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리더십지도사, 다양한 세대를 표현하여 정서적인 안정감과 언어 감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켈리그래피 지도사 1급, 다양한 색상과 표현 기법으로 창의적인 사인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POP 아트 지도사 1급, 아동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2의 학습교사 역할을 하는 방과 후 학교 지도사 1급, 아동과 청소년들의 지식 및 기술향상, 태도개선 및 습관형성, 흥미유발을 도와 지적발달과 감성발달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상담지도를 실시하여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서지도사 1급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자격증들이 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고려해본 뒤, 취득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민경 기자  
rudvmfhelp@gmail.com

## 학점·학비 받고, 실무 배우는 IPP

### IPP 장기현장체험학습 참가자 모집



▶ IPP 장기현장체험학습 참가자 사진

동서대학교에서는 5월부터 7월까지(선착순 모집 마감) IPP 장기현장체험학습 참가자를 모집한다. IPP 장기현장체험학습이란,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4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 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 :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제도로서, 학생들에게 기업에서 실무 경험 기간 경험하게 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중심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학비도 받고, 실무도 배울 수 있는 명확한 진로를 설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은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학생은 우수기업 취업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업은 검증된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고, 대학은 창의적 육성 및 사회 기여를 할 수 있다.

2020년 9월 기준, 3~4학년 재학생 중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진로역량 개발 희망자 ▲기업 현장에서 성실하게 헌신 업무 학습하고자 하는 자 ▲기업 요구 사항과 매치되는 전공 분야 재학생에 한해 선발전 예정이다. 참여 해당 학과(전공)로는 ▲경영학부(경영학 전공, 글로벌 전공) ▲국제학부(국제통상학 전공, 국제물류학 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에너지 생명공학부(신소재공

학전공, 에너지환경공학전공, 글로벌 생명공학전공) ▲컴퓨터공학부 ▲건축 토목공학(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이다. (IPP 장기현장실습 참가 기간 중 타산업 중복지가 불가, 재외 학부: 보건 의료계열, 경찰행정학과, 건축설계학과) 학점도 받고, 학비도 받고, 실무도 배울 수 있는 IPP 장기현장실습은 ▲전공선택 12학점 및 대학적정 현장실습 이수 (P/N) ▲실습 지원비 지급(180만 원 내외/월) ▲장기현장실습 기금 및 관련 기업 취업 연계 ▲선발전 시험 기출문제 제공 ▲멘토, IPP 전담 멘토(멘토링)를 지원한다. (IPP 장기현장실습을 참가하더라도, 국가장학금 성적 및 우수 학점 기준만 충족한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하다.) IPP 장기현장실습은 연속 참여 불가하니 참고해야 한다. (최대 2회 참여 가능) 실습 기간은 2020년 9월 1일~2020년 12월 31일(4개월)이며, 실습 기간은 1일 8시간, 주 5일(1주 40시간)이다.

참가신청은 동서대학교 IPP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다. (스튜던트 플라자 3층 IPP 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상담 가능) 신청할 때에는 이력서(사진 필수), 자기소개서, 개인 정보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성적 증명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이력서, 자기



▶ IPP 장기현장체험학습 참가자 모집 포스터

소개서는 파일 이력서로 작성하여 업로드 해야 한다. IPP(장기현장실습)은 참가신청→지도교수·학부(과) 장 승인→IPP 전담 교수 상담(희망 직무 및 기업)→선발(1차 서류, 2차 면접 평가)→학생-기업매칭(서류접수, 기업 면접)→OT 사전교육(미수료 시, IPP 장기현장실습 참가 불가)→현장실습(실습 실시 후 2주일 이내 QJT 수행계획서 제출, 매일 3일까지 전월 분 월간 보고서 제출, 실습 종료 후 5일 이내 종합 보고서, 기업 평가서 제출)→사후평가(필수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 참가해야 하며, 홍보영상 콘텐츠 참가는 선택이다.)→성과보고회(홍보영상 콘텐츠 수상자 시상 및 발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IPP 장기현장체험학습은 지난 2018년도 IPP 일 학습 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IPP 장기현장체험학습 관련 사항은 동서대학교 스템트 플라자 3층 IPP 사업단 혹은 051-320-2867, 4866에 문의할 수 있다.

김민경 기자  
rudvmfhelp@gmail.com



책 속의 풍경 - 명리심리학

사주를 믿으시나요?



• 책 제목: 명리심리학
• 책 저자: 양준순
• 출판사: 다산북스

명리학은 사주에 근거하여 사람의 길흉
화복을 알아보는 학문으로써 학문 명이 생
소할 뿐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 그대로 '사
주'이다. 양장순 작가는 명리학의 학문
의 사로서 환자와의 상담을 해오던 중 해소되
지 않은 감정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 바로
'환자가 진실되게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
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사주는 거
것이 없다는 뜻에 따라 명리학이라는 학문
을 공부하였고, 서양의 정신의학인 심리학
과 동양의 정신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명리
학을 상담 과정 중에 접목하게 되었다. 실
제로 작가님의 임상 경험에서 명리학과 심
리학을 환자에게 같이 접한 결과 명리학을
더 잘 받아들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심리
검사 후 자기중심적인 환자에게 '당신은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직설적인 말보다
'당신은 명리학적으로도 세상이 내 중심으
로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
하다.'라는 말로 성격의 특성을 설명해 주
면 쉽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만 봐도 동양의 점을 치는 역사가 오

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궁에서 왕비나 세
자비를 간택할 때 가장 첫째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사주팔자였다고 한다. 사주의 핵
심, 즉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오행이다.
오행이란 우주의 만물을 이루는 다섯 가지
원소 수(水), 목(木), 화(火), 토(土), 금
(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오행과 각각
의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이
다. 사주라고 하면 정해진 흐름이 있고 그
흐름대로 가가 흐른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해 사주의 무섭고도 신기한 면을 소개해 주
려고 한다.

<남 너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불(火)과 불(火)이 만나면 맞지 않듯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오행의 기운을 찾게 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수(水)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
은 그것을 막아줄 목(木)의 오행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기한 점은 배우자
를 귀하게 여기는 사주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오행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거나 사주에 배우자를 상징하는 오행
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도 배우자
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성격유형은 무엇인가?> 정
취 욕구가 큰 행동지향형들은 자신이 갖
고 있는 능력을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겨
결과물을 산출하는 역량이 '식상'이
많은 사주로서, 표현능력이 우수하고 인
간관계에서도 상대에게 잘 맞춰주는 성
향을 갖고 있다. 또한 감각적인 면이 높
아 예술 분야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
다. 책임감이 강한 자기 절제형은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를 절제하는 역
량이 '관'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이 깊은
사고 지향형들은 인수의 뿌리가 깊은 사
람들이다. 인수는 생명력, 부모, 자비심,
학문의 역량을 상징하므로, 인수가 적절
한 경우 생각이 깊고 근본적인 이해와 자

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
다. 과감하고 자긍심이 강한 권력 추구형
들은 비겁이 많은 사주이다. 비겁이란 기
운이 되는 오행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목(木)이 기준이 되는
오행인데 이 목(木)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다. 이런 사람들은 경쟁적이며 호불호가
분명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면도 있다. 빠
른 판단력과 결정력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사주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한다.

명리학이란 삶의 지도와도 같다고 생
각한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땐
자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지도를 보고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어떻게 갈 건
지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안다면
모를 때와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지도는 뜻밖의 합력을 만나 추
락하지 않을 정도라면 앞길을 인도해 줄
뿐이다. 제아무리 타고난 좋은 사주라고
해도 그 심성을 갈고닦지 않으면 갈고닦
은 심성을 가진 사람보다 못하게 된다고
한다. 이 말은 제아무리 성공할 팔자라
도 자신의 노력이 기울지 않으면 그 사
주는 빛을 못 바라게 되어 있다는 말이
다. 내 사주가 약하다고 한들 학문으로
써 덕의 함양을 쌓고, 기가 강하다고 한
들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함으로써 내 기
의 균형을 맞춰주면 된다.

추운 사주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따듯
함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반대로
더운 사주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라앉
히려고 노력함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맞
추어 나아가야 한다. 순응하는 것이 아
닌 더 좋은 삶을 위한 노력도 내 사주의
일부이지 않을까. 김양경 수습기자
kimay6240@gmail.com

이달의 영화 - 파수꾼



• 영화 제목: 파수꾼
• 감독: 윤성현

독립영화는 저예산이기 때문에 소수의
극장에서만 상영을 하고 유명 배우가 등
장하는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상영 영화
에 비해 주목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많
은 상을 휩쓸며 주목을 독립 받은 영화가
있다. 바로 독립영화계의 걸작이라는 평
가를 들은 영화 파수꾼이다. 10대 때의
우정은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로 애정의
결여는 무시할 수 없는 아픔과 예민함을
갖게 한다. 파수꾼은 이런 10대들의 학창
시절 친구들의 우정과, 우정 속에 숨어있
는 서열, 열등감, 이성에 대한 관심, 외
로움, 등을 그려내고 있다.
파수꾼은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쫓
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버지는
기타의 자살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
를 듣고자 하지만 친구들은 별로 전하지
않았으며 다른 친구들의 이름과 연락처
를 내밀기 바쁘다. 답답함을 느끼던 중
아버지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최준
은 전학을 가버렸고 정윤은 장례식에 오
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이상함을 느낀
아버지는 최준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만

소통의 부재

최준은 전학을 가서 아는 게 없다고 답하
고 정윤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영화는
과거로 돌아가 최준이 전학가게 된 이유
를 보여준다. 죽은 기타는 겉으로는 친구
들과도 잘 어울리고 싸움도 잡하는 흔히
정말로 불리는 학생이다. 하지만 내면은
엄마의 부재와 안정되지 못한 가정으로
인해 결핍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부모님
얘기를 피하고 숨겨려 드는 모습을 보였
다. 어김없이 친구들과의 대화중 기타가
엄마 얘기에 대화의 흐름을 바꾸자 친구
와 함께 최준이 눈짓을 주고받았다. 이에
미묘한 분위기를 느낀 기타는 분노한다.
작중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언급했던 것이
무색하게 기타는 최준에게 느낀 분노를
폭력과 괴롭힘으로 해소했다. 기타가 뒤
늦게 최준에게 사과하지만 진정성 보다는
어색한 사이를 풀고 다시 친구가 되고
자 한 사과였다. 최준이 여전히 거리를
두자 기타는 욕박을 지르고 폭력을 휘두
르며 '이 정도면 됐잖아'라는 식의 협박
과도 같은 사과를 강요한다. 자존심이 강
해 속을 내보일 줄 모르던 기타에게는 폭
력으로 짓밟게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
는 것이 이번 방법이었다고 분노 해소 방
법이었다. 하지만 최준에게는 기타와의
사이에 존재하던 서열을 느끼게 했고 최
준은 이런 관계에 지쳐 기타에게 자신은
친구로 생각하지 않으며 일진이기 때문
에 어울릴 뿐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학으
로 기타를 떠나 버린다.
카메라가 전환되며 현재로 바뀌고 동
윤과 연락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타 아
버지의 부탁으로 동윤을 만나게 최준의
모습이 잠현다. 왜 장례식에 안 왔냐는
물음에는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기타 아
버지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에도 대답
을 회피한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장면이
변환되며 최준의 일로 기타에게 충고하

는 동윤의 모습이 잠현다. 하지만 기타는
동윤의 충고에 동윤의 여자친구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안 된 소문으로 답을 대신한
다. 격정이란 말로 전달하지만 친구들 앞
에서, 그 상황에서 동윤에게 말한 것은
'너나 잘해'라는 마음에서 별은 말일 것
이다. 이로 인해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
하던 동윤과 기타는 동윤의 여자친구가
누군가에 의해 전해진 질 나쁜 소문을 들
고 자살 시도하는 일이 벌어지며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기타는 동윤과 잘 해보려
다고 다시 찾아가 보지만 동윤의 마음은
이미 닫혀 버렸고 자존심도 버리고 너만
알아주면 된다고 하지만 정윤은 그런 기
태의 마음과 후회를 '너만 없었으면 돼'
라는 말로 돌려준다. 친구를 중요하게 생
각하던 기타는 가장 친했던 친구 두 명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어머니의 부재와 아버지의 무관심 속
소통하는 방법과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법을 몰라 날카롭게 자신을 지키려는 기
태와 기타에게 무시당하는 자존심을 지
키고 싶었던 최준이, 여자친구를 지키고
싶었던 동윤이는 모두 무언가를 지키고
싶었던 파수꾼이었다. 감독은 '지키는
자' '진실을 쫓는 자' 라는 파수꾼의 의미
를 반어적으로 쓰고 싶었다고 한다. 영
화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
해 남에게 상처를 주지만 어느 누구도
본질적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른인척 굴지만 미숙
한 아이들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을 뿐이다.
파수꾼은 어느 영화처럼 아름답고 성장
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그저 아름답게 날카롭게 그려내고
있다.
김경은 수습기자
ymacom10@gmail.com

'나도 될 수 있다' 스톡 사진작가

대학생의 손쉬운 부업, 사진으로 돈 벌기



▶셔터 스톡 이미지

대학생이 되어 과제를 할 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PPT
를 제작하게 되면 구글에 떠다니는 이미지
를 검색하고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이해
없이 곧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
만 저작권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전 국민이 1인 1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다. 사진은 대중적인
취미 중 하나이며, 일상적인 일이 됐다.
그렇게 쌓여가는 사진을 판매하여 개인은
돈을 벌 수 있다. 전문 사진작가가 아닌
아마추어라도 사진 판매가 가능하다. 구매
자의 마음에 든다면 어떤 카메라로 촬영
했든 무방하다. 이렇게 저작권에 대한 이
슈 확대와 함께 사진 촬영이 손쉬워지면서
스톡 사진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쉬운 촬영과 더불어 내가 찍은 사진으로
수익을 얻기도 쉬워졌다. 취미 사진 스마
트폰으로 간단히 찍은 사진으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스톡 사진작가가 되어 부업으
로 소위 용돈벌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 스톡 사진
스톡 사진은 단어의 뜻 그대로 비축된
사진을 뜻한다. 우리가 평상시 보고 읽는
모든 것의 재료로 사용되는 유료 사진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블로그, 외국의 신문,

잡지, 광고 등 일상에서 평범히 볼 수 있
는 사진의 상당수는 플랫폼을 통해 유료로
판매하는 사진을 구매하여 사용된 것이다.
플랫폼(사이트)에서는 사진작가들의 사진
들을 모아 열람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쌓
아놓는다.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면 기업이나 개
인이 필요에 따라 돈을 지불하고 사진을
구입한다.
# 스톡 사진작가
일반적인 사진작가는 촬영 의뢰를 받고
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스톡 사진작가는
미리 원하는 사진을 찍어 놓은 후, 개인이
디자이너들이 사진작가의 찍어둔 사진을
선택해서 허락을 구하고 이미지를 사용한다.
때문에 개인도 쉽게 사진을 올리고 판
매하는 작가가 될 수 있다. 사진을 취미로
즐기는 경우라면 사진작가에 도전하여 수
익을 얻기 쉬운 것이다.
스톡 사진작가가 되려면 일종의 심사를
위한 사진 작품집(포트폴리오)을 기본적으
로 준비해야 한다. 이는 스톡 사진 업체마
다 차이가 있는데, 일부 업체의 경우는 작
가 등록 과정에서 100장의 사진을 요구하
기도 하고,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사진 업
로드가 가능한 업체도 있다.
스톡 사진 업체에서 소위 대박을 친 대
표적인 사진작가는 유리 아커스(Yuri

Arcurs)다. 2005년에 스톡 사진을 시작해
연 매출 20억 원 정도를 올리는 스타작가
이다. 스톡 사진작가들의 사진 주제는 대
부분 명확하다. 전문성이 확보되면 사진의
품질을 올리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제를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이
다. 유사한 주제를 다룰 경우 단골이 생기
는 경우도 있다.
# 스톡 사진작가 수입
스톡 사진은 대개 윤으로 수익이 생긴
다. 실제 돈을 벌기 위해 사진을 찍어 올
려도 사진이 판매되지 않는 이상, 수익을
벌어들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스톡 사진
을 통해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스톡 회사
가 차지한다. 스톡 사진작가는 사진 판매
가격의 대략 최대 30%의 금액만을 가진
다. 때문에 스톡 사진작가는 공헌자
(Contributor)라는 용어로 대체 가능하다.
스톡 작가는 이미지 판매회사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학생'에게 스톡 작가라는 직업
은 꽤나 매력적이다. 취미 생활도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다 보면 외의 수익이 대거
생기기 때문이다. 스톡 작가는 전업으로
종사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주업은
따로 있으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취
미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이 좋다.
# 스톡 사진 사이트
스톡 사진 업체는 일반적으로 매크로 사
이트와 마이크로 사이트로 나뉜다.
매크로 사이트는 독점적 권한을 갖는 사
진만 취급하는 업체이다. 매크로 사이트에
서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00장 이상
의 사진 분량 준비와 어려운 사진 심사 과
정을 거쳐야 한다.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
로우며 사진 품질도 꼼꼼히 점검한다. 하
지만 독점적 권한의 사진 취급업체 사진
판매 가격이 한 장당 5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므로 작가들에게 매우 유혹적이다.
마이크로 사이트는 사진을 올리면 다른
업체에서도 볼 수 있도록 공유 권한을 갖
는 업체이다. 작가 입장에서는 여러 사이
트에 사진을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사진을 판매
하고 작가로 등록하기도 쉽다. 사진에 대
한 특별한 요구 조건도 없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판매 가능하다. 마이크로

사이트는 처음으로 스톡 사진을 시작하는
초보 사진작가에 권장한다. 때문에 대학생
들도 사진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최근에는 외국 업체들도 한국어 서비스
를 시작해 일부 스톡 사진 사이트는 번역
없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스톡 사진 업체들은 ▲게티이미지
▲아이스톡포토 ▲셔터스톡 ▲포토리아 ▲
123rf ▲드림스타디움 ▲게티이미지코리아
▲토크이미지 ▲유익이미지 ▲데포짓토
스 등이 있다.
스톡 사진 사이트의 인기는 꾸준히 높아
지고 있다. '셔터 스톡'은 스톡 사진 사이
트의 대표주자로 2003년 미국 뉴욕에서 설
립되어 현재 약 3억 개 이상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20만 개 이상이 추
가되고 있다.
가장 역사가 깊은 스톡 사진 업체인 '아
이스톡'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적극적
인 현지화에 나서고 있어 이용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에 감정을 가
진 어도비가 운영하는 '포도리아'도 고품
질 사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셔터 스톡 사진작가 되기
셔터 스톡은 스톡 사진 사이트의 일인자
이다. 위 사이트는 가입 시 무료 이미지
10개 제공 및 한 달 무료 평가판 체험이라
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셔터 스톡의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회원가입 시
기본 정보 및 주소 등 모든 개인 정보를
영어로 기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둘
째, 계정 설정을 통해 지급정보, 계좌 설
정이 필요하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지급
받기 위함이다. 셋째, 이미지를 등록해야
한다. 이미지 업로드 창에 최소 4매가 픽
셀이 넘는 JPG 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사
건의 설명, 카테고리, 키워드 등의 입력도
필요하다. 해외 사이트기 때문에 영어 입
력이 중요하다. 사진은 최대 5일 정도의
검토 단계를 거쳐 등록된다.
자료출처 : 네이버 포스트 [이미지 저작권]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진출처 - BIZION(셔터 스톡 제공)
김태항 기자
hyangsun3311@gmail.com

축제·공연 소식



부산 국제 식품대전

- 기간 : ~2020. 06. 20. (토)
•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 주최 : 부산광역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 커피쇼

- 기간 : ~2020. 06. 20. (토)
•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 주최 : (사)한국커피연합회



앨런 플레처 회고전 :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

- 기간 : ~2020. 06. 21. (일)
• 장소 : 부산시민회관
• 주최 : 부산문화회관, KT&G 상사마당



친정엄마와 2박 3일

- 기간 : ~2020. 07. 12. (일)
• 장소 : 소량세터 신랑카드홀
• 주최 : ㈜아이스타미디어



포레스텔라 콘서트 <넬라 판타지아>

- 기간 : ~2020. 07. 18. (토)
• 장소 : 액티스극장
• 주최 : 교육근단 교총가부부대



사운드X사운드#1 [소란X벤]

- 기간 : ~2020. 07. 25. (토)
• 장소 : KBS 부산홀
• 주최 : 케이엔마스터엔터테인먼트



검은 스님들

- 기간 : ~2020. 09. 05. (토)
• 장소 : 초콜릿팩토리
• 주최 : 위너스아트컴퍼니



# 모두가 마음 모아 이뤄낸 6.10 민주항쟁



▶박종철을 기리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신문



▶연세대학교 한얼동산 조형물

▷사진출처 - [UP뉴스]

사건의 발단은 1987년 군부독재가 일으킨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다. 4·13 호헌조치로 인해 직선제 개헌을 막았으며 87년 6월 9일 격렬한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과격하였고 당시 연세대 2학년이었던 이한열이 맞고 쓰러졌다. 시위 진압 용도로 만들어진 최루탄이 인류를 살상하는 무기가 된 것이다. 이때 시민들은 이한열과 같은 이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전경들에게 최루탄 발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은 이한열의 죽음은 6월 민주 항쟁의 불씨가 됐다. 6월 10일 '호헌철폐·독재 타도'를 외치며 6월 민주 항쟁이 시작됐다.

학생 직장인 종교인 상관없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인 백골단이 진압을 시도했지만 사람들은 물러나지 않았다. 박종철의 연고가 부산으로 연이어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도 들고일어났으며 6월 11일 넥타이 부대가 등장했다. 일주일 뒤인 6월 18일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정부는 최루탄을 던지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랍을 잘라서 눈과 코를 막으면서 굶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6월 23일 최루탄에 희생된 이한열을 기리며 택시 기사들의 차량 시위가 벌어졌다. 지나

다니며 클랙슨을 울리며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했다. 그 후 군부독재 정권은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며 6·29 선언을 했다. 이때 헌법에 '제1장 2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명사됐다.

###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1987년 1월 15일 신문에 한 대학생이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에 쇼크사로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신문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이를 본 시민들은 적노했다. 당시 담당 신문기자가 간부의 방에

들어갔다 대학생이 죽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기록부를 찾아보고 여러 조사 끝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후 이 사건을 알아내기 위해 87년 1월 17일 특별조사를 편성했다. 그러나 당시 치안본부장은 박종철이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을 여러 컵 마시고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이때 당시 터무니없는 증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풍자를 하기 위한 요소로도 많이 사용됐다.

박종철이 고문을 당한 곳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대공수사기관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의 5층이였

는데 총 15개의 독방 취조 고문실이 있었으며 창문이 무척 작고 좁았다. 이는 고문을 은폐하기 위함이었으며 비명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방음처리를 했으며 또한 고문당하는 이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문을 어긋나게 건설했다. 1월 14일 박종철은 이곳으로 끌려와 욕조를 이용해 물고문을 당했다. 당시 경찰의 수배를 받던 박종철의 선배인 박종훈의 행방을 몰랐고 국력을 열지 않았고 밤새 시행된 물고문으로 인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박종철의 사건은 분할 수도 있었지만 언론 보도 및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죽음의 실체를 밝혔고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현재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바뀌었다.

### # 4·13 호헌조치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개헌 논의를 일체 중단시킨 조치이다. 4월 3일 박종철 49재와 고문 추방 국민 대행진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경찰의 강력한 저지로 무산되었고 이때도 전두환은 수석비서관들과 환담을 하면서 '힐 가진 사람이 정치를 자기 뜻대로 못한다면 바로 가운데서도 제일 바보야. 오늘 저 사람들이 49재 데모를 한다고 어떤 변화가 있겠어.'라고 이야기 했다.

그 후에도 두 차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공권력을 이용하여 저지하였고 그 후 전두환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

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 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시민들의 비난과 분노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 # 대통령 직선제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얻게 됐다. 하지만 그 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지만 노태우는 전두환과 육사 동기이며 군부정권을 함께 이끌었다. 그런데도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는 당시 탑승자 115명이 전원 사망하는 KAL기 폭파 사건이 있었다. 이때 김정일의 친필 지령으로 시행한 김현희를 TV로 생중계하며 안보 강화를 하는 전두환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로 인해 야당의 단일화가 실패하여 표가 나뉘었고 많은 희생자와 열정과 의지로 힘들게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이지만 정권은 바뀌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KBS 역사저널 그날 유튜브채널  
이유진 수습기자  
yujin6244@gmail.com

# 새내기들을 위한 학교생활 정보 2탄

지난 5일, 동서대학교는 대면 수업 및 기말 평가 실시를 알렸다. 과제 및 실기평가로 운영되는 기존 과목은(예체능 과목 등) 제외되나 6월 22일부터 27일 동안 이루어지는 기말시험 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부분적 학교 등교가 허용됐다. 이에 학생들은 캠퍼스를 제약적이거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현재 동서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강의가 연장된 상황을 기회 삼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수 개편했다. 각 건물마다 배치된 휴게 공간을 비롯해 미래형 강의실을 구축하는 등 학생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뜻을 담은 신설 장소인 만큼, 신입생을 비롯한 많은 학우들의 유용한 사용을 장려한다.

## # 간호학과 미래형 강의실



▶보건의료관(3번 건물) 1층 간호학과 미래형 강의실

동서대학교 간호학과는 2009년 봄, 사람을 실천해나가는 과학과 예술의 '간호학' 전당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기독교 인성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서대학교의 건학 이념 특성을 살려 지금까지 무궁히 발전했다. 다양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근거 중심의 전문지식 및 실무기술 함양을 위해 우수한 교수진, 다양한 교수학습 체계, 첨단 실습 기자재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랩, 특수 임상현장에 대한 실습환경 및 산학협력 학습체계를 운영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 상황에 근거해 올해 초, 보건 의료관(3번 건물) 1층에 '간호학과 미래형 강의실'이 설립됐다. 미래형 대학 체제로의 창조적인 혁신을 통하여 변화무쌍한 지식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했다. 여러 대의 최신 컴퓨터를 포함해 쾌적한 회의가 가능한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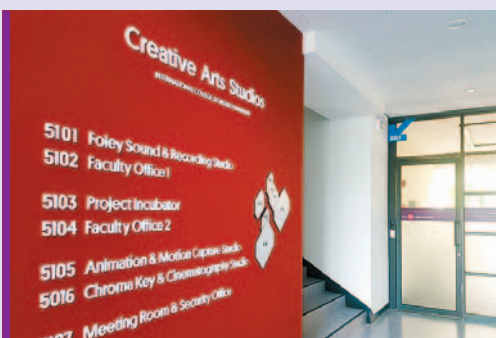
## # 디자인 IFS



▶디자인홀(9번 건물) 1층 디자인 IFS

디자인 홀(9번 건물) 1층의 맨 오른쪽에 위치한 '디자인 IFS'는 기업이 찾는 산학협력 실현이라는 동서대학교의 새로운 걸음의 실현으로 실무형 '교내 현장시스템' 확대 운영에 따라 신설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 대학(LINC+·링크 플러스) 육성사업(산학 협력 고도 화형)' 1단계 평가에서 '배우 우수' 평가를 획득한 동서대는 '기업이 대학으로 찾아오는 산학협력 모델' 구축에 착수했다. 전공별 융합교육을 통한 고도화된 '교내 현장시스템(IFS: In-school Field System)' 운영의 산물 중 하나가 바로 '디자인 IFS'이다. 넓은 강의실에 구축된 대형 TV와 책걸상은 학업의 질을 크게 높였다. 그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의 배치로 인해 교수진 강의의 질 또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기술과 예술이 결합하는 기획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독창적인 디자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대학으로서 학생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 앞으로 '디자인 IFS'를 통해 세계화 선진 교육, 정보화 교육, 전문성이 바탕 된 현장 실무능력 강화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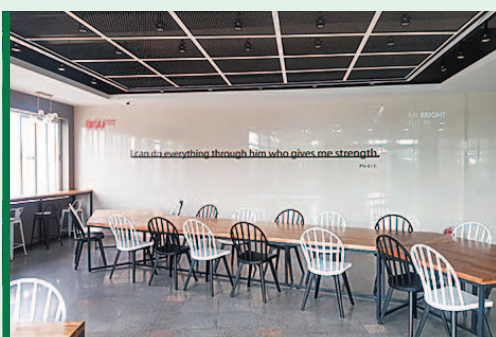
## # Creative Arts Studios



▶산학협력관(5번 건물) 1층 Creative Arts Studios

산학협력관(5번 건물) 1층에 새로 신설된 'Creative Arts Studios'는 창의적 마인드를 일깨워주는 미래형 첨단 교육 장소다. 세련된 디자인의 교육 시설을 비롯해 토폴 개념의 시설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연도에 구축됐다. 대한민국의 근본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습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는 동서대학교의 취지를 본받은 장소다. 독창성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관습적인 사고방식과 달리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Creative Arts Studios'는 총 7개의 강의실로 구성됐다. 5016호 강의실인 Chroma Key & Cinematography Studio의 경우엔 가운데에 기다란 탁자가 있어 회의 공간으로 쓰기 유용하도록 디자인됐다. 'Creative Arts Studios'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면 출입 금지 상태이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경우 학생들을 위해 개방될 예정이다. 'Creative Arts Studios' 사용은 학생들이 지식 탐구 전공분야의 지식을 학습하며 미지의 새로운 분야를 탐구해 나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 어문관 1층 휴게 공간



▶어문관(6번 건물) 1층 휴게 공간

기존에 배치되었던 어문관(6층 건물) 1층의 휴게 공간이 새롭게 바뀌었다. 왼쪽으로 치우친 채 배치된 이전과 다르게 긴 원목 탁자가 놓였다. 탁자와 잘 어울리는 흑백의 의자 또한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보여 세련된 모습을 풍기게 됐다. 긴 탁자에 여러 의자가 나열되어 있어 많은 인원이 앉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식사를 비롯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미에서 더욱이 발전해 공부할 장소로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의자 수가 늘어난 만큼 학생들이 앉을 곳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1층에 자리 잡고 있어 근접성과 편의성이 뛰어나다. 어문관은 국제관과 연결되어 있어 국제관을 찾는 학생들과 어문관을 찾는 학생 모두 많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본 장소는 필히 휴식이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신현정 수습기자  
hyujk369@gmail.com





## 나의 지난 1년과 새로운 1년

이연주 (이벤트컨벤션·2)

2019년 3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3월은 참 따뜻한 한 달이다. 모든 학교가 그렇듯, 3월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다. 나의 3월은 샌턴 캠퍼스에서 시작되었다. 학교 가는 길이 멀었지만 처음 가는 학교에 기대감을 가지고 등교를 했다. 어색한 친구들과의 첫 만남. 언제나처럼 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도 시작되었다.

첫 등교를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내가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항상 아침이 되면 교복을 입고 등교를 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매고 싶은 가방을 멘다. 한껏 꾸민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 20살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차근차근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시간은 지나고 학교생활에 익숙해졌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학과 연구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연구회에서는 학과와 관련된 공모전을 찾아 활동을 하였다. 나는 내가 해보지 못한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었고, 연구회에 가입은 했지만 떨려 겁이 났다.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회 활동에 익숙해질 때쯤, 전해지고 싶었던 2학년 언니와 이력서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그때 언니가 나에게 전해준 말들은 지금 2학년이 된 나에게 아직까지 큰 힘이 된다. 1학년이기에 학교생활이 어려웠던 나의 고민도 들어주고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이나 앞

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나에게 이때의 감정은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생이 되면 경험할 수 있는 조별 과제는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어떠한 일로 인해 조별 과제가 꽤 괜찮은 것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조를 했지만 한 번도 조별 과제를 해보지 못한 친구들이었다. 즐겨움보다 걱정이 앞섰다. 혹시나 과제를 하면서 사이가 틀어질까 봐 겁도 났다. 하지만 나의 예상과는 달리 과제를 하면서 우리는 더욱 돈독해졌다. 학교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우리는 매일매일 학교에 남아 과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서로 양보하고 때론 협력하며 과제를 마무리하였고 과제에 대한 결과도 너무 좋았다. 또한, 나는 과제를 하는 동안 우리만의 추억이 생긴 것 같아 과제의 결과에 상관없이 너무 행복하게 조별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1학년의 학교생활을 마치고 겨울 방학이 찾아왔다. 겨울 방학의 나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D-MAP 동기부여에 대한 우수 학생으로 중국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중국 여행을 다녀오는 뒤, 여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했고, 내가 나서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거의 100명 정도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 발표를 해야 했고, 그렇

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발표를 듣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었다. 평소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너무 긴장이 되고 무섭다는 생각이 지 하였다. 그러나 발표를 무사히 마친 뒤 나의 감정은 그 누구보다도 짜릿했고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2학년이 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해 온라인 강의로 대신하고 있다. 언제나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과제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던 기억들만 남아 지금은 그런 생활이 그리움도 하다. 그리고 이번엔 입학한 한 20학번 친구들과 나와 같은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대학생활을 즐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평소와 같은 여름이라면 한껏 꾸며 친구들과 바다에 가서 놀기도 하고, 방학이 되면 워터파크나 계곡에 놀러 가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딘가에 가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남이 아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이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의 지난 1년과 새로운 1년을 위하여, 그리고 모두의 지난 1년과 새로운 1년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그날까지 모두들 행복하길.

## 죽비소리

## 6.25에 대한 나의 기억

이지영 (방송영상·2)

6.25에 대한 나의 기억은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모두 다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인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6.25 전쟁이라고 이른다.

초등학교였던 나는 6.25 참전용사 분들에게 그림이 그려진 손 편지로 그 당시 희생을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6월이 되면 6.25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행사들이 매년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활동들을 하며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깊이 느끼곤 했다. 하지만 어렸던 만큼 전쟁에 대한 공포도 컸던 것 같다.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질 상상을 하며 두려움을 갖기도 했다.

그 후 조금 성장한 중학생의 나는 역사 수업 시간에 각종 영상들을 보며 그 당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아마 그때가 6.25 전쟁 상황에 대한 상생 상황을 배웠던 시기였을 것이다. 6.25 전쟁, 한국전쟁 또는 조선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이 압록강 북쪽 224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 선 전역에 걸쳐 남한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으로,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한 국제 전쟁으로 비화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 교전이 이어졌다. 북한이 남침을 하고 3일 만에 남한의 수도인 서울을 점령하고 거센 기세로 남쪽을 향해 내려

왔다. 그 해 9월에서 11월까지의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남한은 서울을 되찾고 평양을 넘어 압록강 지역을 점령하게 된다. 그러는 중, 중국 인민 해방군이 북한을 도와 전방을 개입하였고 국제연합군은 결국 평양을 다시 북한군에게 내주고 후퇴를 하게 된다.

이후 3년간 지속된 전투로 수많은 군인 및 민간인이 사상하였고, 대부분의 산업 시설들이 파괴되는 등 양측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념적인 이유로 민간인들의 학살이 자행되고 지주들의 처벌과 그 보복이 반복되면서 남·북간의 적대적인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22시에 체결된 한국전쟁협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휴전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과 그를 뒷받침하는 영상들을 보며 6.25 전쟁 당시를 좀 더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한국어 과목이 수능에서 의무 응시가 되며 역사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 고등학교 때는 6.25 전쟁과 더불어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라를 집권하던 시기에 북한이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 미사일을 쏘았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이용해 우리나라 가요를 트는 등 보복을 하였다. 북한의 으뜸장에도 박 대통령은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북한

은 '유감이다'라는 말로 사과를 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6.25에 대한 나의 기억은 더욱 뚜렷해졌으며 그 지식의 깊이가 또한 깊어졌다.

이는 6.25에 서린 많은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 어릴 땐 외워야 하는 역사책 내용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산가족을 보면 함께 눈물 흘릴 줄 알고, 북한과의 잦은 마찰에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걸 보면 나 또한 많은 성장을 거듭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타인을 이해할 정도로 성장했음을 느껴진다는 것은 역사의 슬픔과 다투며 또 다른 미묘한 감정을 주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라고만 단편적으로 생각했는데, 사랑을 성장케 하는 것을 보아 우리는 역사와 함께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 스스로가 느낀 바와 다르게 이러한 역사는 점점 잊혀가는 추세다. 현재 사회는 6.25를 겪은 세대보다 겪지 않은 세대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 오히려 그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차차 감소하고 있다. 한국사를 수능 내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세대를 사이에서는 한낱 과거의 일로 치부될 뿐이다. 분단의 아픔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아직 분단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세월이 가도, 그 아픔과 그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많은 국가 유공자들에게 대한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

## 이달의 명언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라. - 괴테

역사적 혹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단테 신체호

믿는 자는 행복하지만 의심하는 자는 현명하다. - 헝가리 속담

## 사 설

20대가 생각하는 문화생활이란 무엇일까? 이들은 영화, 연극, 전시, 뮤지컬 관람 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포함해 SNS에서 본 맛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 모바일로 웹툰 보기,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음악 듣기, 유튜브 등의 영상 채널을 정기구독하기 등 재미와 즐거움이 있다면 작고 소소한 일상적 행위조차 문화로 정의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상적 행위도 영화 관람과 같은 일반적인 문화관람 활동과 동일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취업과 학업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에게 감성적 소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문화생활은 필수라고도 할 수 있다.

20대가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전시회나 페스티벌도 일반적인 광범한 콘텐츠가 아닌 전시 공간을 활용해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 전시회,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페스티벌 특색을 입고 참여하는 페스티벌 등이 더 어필된다. 20대들의 취향과 입맛에 맞춰 다채로운 주제들과 높은 접근성, 낮아

진 정벽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등장해 전시회와 페스티벌을 즐기기가 쉬워졌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20대들, 그들의 문화생활 관점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시회에서 사진이나 인증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8.6%의 20대들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는 20대는 61.3%로 반 이상이 넘었다. 이처럼 문화생활을 즐기는 이유 중 하나로 인증 사진을 찍거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를 위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20대들이 매우 많다.

여기서 우리는 '혹시 감상보다 촬영이 더 집중하지는 않았나' 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 봐야 한다. 20대들이 관람하러 와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전시회의 홍보 효과가 크겠지만 올바른 관람 문화를 흐트리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제작자 입장에서 카메라로 인증 사진을 남기

## 슬기로운 문화생활

느라 본인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다면 슬픈 일이지 않겠는가. 예시로, 서울에서 열린 한 전시회의 풍경은 참으로 독특한 풍경이었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 전시회 오픈을 기다렸으며, 전시회가 열리자 모두들 카메라를 들이 한 작품을 찍고 다음 작품으로, 또 찍고 다음으로...

줄을 지어 사진만 찍으면서 넘어갔으며 전시회에 있던 스태프들은 '사진 찍으셨으면 빠르게 넘어가시겠습니까?'라는 말을 해버리는 이상한 전시회도 열린 적이 있다. 전시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게 만드는 일화이다. 촬영이 불가능한 전시회를 제외하고 촬영이 가능한 전시회에서 작품을 사진으로 찍으며 감상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촬영보다도 감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상하는 사람의 주변에서 촬영을 하려고 기다리던 타인의 여유로운 작품 감상을 조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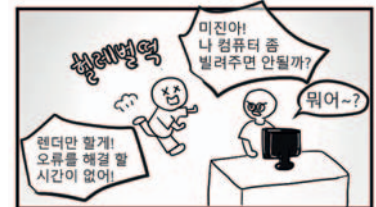
문화생활을 슬기롭게 즐기기 위한 에티켓들이 있다. 전시회 경우, 첫 번째로 구두 같은 소리가 나는 신발은 신지 않는 것이다.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이동할 때 발소리가 난다면 타인의 작품 감상에 방해할 줄 수 있으니 되도록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작품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회화 작품, 조형물, 설치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회에서 작품의 소재나 디자인에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고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작품 작가의 맘과 노력의 산물이기도 오염이 되거나 훼손,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껌이나 음료 등을 식물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한다. 순간 방심한 실수로 작품에 흘리거나 튀었을 경우, 작품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네 번째로 사진촬영은 관람 전에 미리 해당 전시회 측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촬영해야 한다. 플래시를 터트리면 안 되는 규정은 플래시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빛과 열이 순수 자연광과 비

슷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관람 중인 사람의 뒤로 이동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작품의 바로 앞에서 관람하면 타인이 관람하는 데 불편을 끼칠 수 있으므로 조금 떨어져서 관람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타인의 옷감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시회에서 정숙해야 한다.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야 하며, 휴대폰 소리를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두어야 한다. 일곱 번째로는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릴 때에는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올려도 되는 사진인지 사전에 미리 파악해야 한다. 여덟 번째로는 장애인, 임신부 등 몸이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며 천천히 여유 있게 감상해야 한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법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때로는 카메라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과 마음으로 작품들을 보고 느끼는 감상과 문화 관람 시 에티켓을 지키는 행동들이 조금 더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네 컷 만화

### 역사



우리 모두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됩시다

새로운 4컷 만화와 만평을 그리게 된 디지털 콘텐츠 학부 3D 애니메이션 트랙 정희진입니다. 4컷 만화는 우리 학교 학생인 디지털 콘텐츠 학부 진희, 간호화과 허서(진 머리), 경향행정학과 지은이(짱은 펴)의 학교생활을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 목회칼럼

## 담장 위로 올라간 거북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네"



최훈규 목사

<거북이 담장에 오르다>는 책이 있다. 주식회사 '슬립 링 코리아'의 정재영 대표가 쓴 글이다. 슬립 링 코리아는 설립 국내 슬립 링 분야 1위를 점주하고 있다. 정재영 대표는 흙 수저 중의 흙 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하루 세 끼조차 먹지 못하고 굶는 게 다반사였다. 너무 배가 고파 갈바닥에 있는 개똥을 집어먹고 배탈이 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사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

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간힘을 쓰며 살았다. 무어곡절 끝에 슬립 링 코리아를 창업하게 되었을 때, 당시 그의 수중에 100만 원이 전부였다. 다행히 지인의 도움을 받아 공장 한 칸을 임대하고 사무실 겸 작업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없이 좁은 작업장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마침내 회전하는 기계장치에 전선의 꼬임 없이 전류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슬립 링의 국산화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의 고백이다. "한평생 거북이처럼 느린 걸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꿈꾸던 담장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내의 희생, 그리고 슬립 링 코리아 임직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간절히 바라던 꿈을 하나씩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북이처럼 참고 인내하며 꾸준한 목표를 향해 걸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꿈꾸던 담장 위로 올라가는 기적은 자기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임직원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삶의 철학은 소설 『부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영향이 컸다.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는 거북이가 높은 울타리 말뚝에 앉아 있는 초라한 사진이 하나 걸려 있다. "거북이는 걸음이 느리고 높은 곳에 오르지도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말뚝 위에 올라갈 수가 없지.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올라갔을 거야." 그는 날마다 거북이 사진을 보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채찍질했다는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금수(禽獸)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고생하신 어머니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고귀한 보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하겠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전 15:10)고 하였다.

##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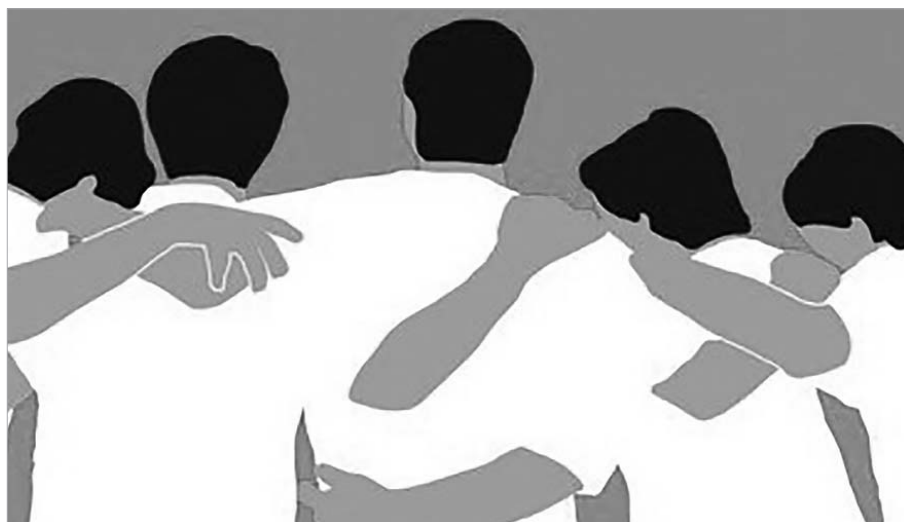
■ 스포츠 가치 실천 지도자 에세이 인터뷰-송강영 교수님

# 스포츠 가치 실천 지도자의 의미

## 스포츠 지도사를 스포츠 가치 실천 지도자로



▶ 송강영 교수님



▶ 송강영 교수님 스포츠 에세이(국제신문)

‘송강영’ 교수님은 스포츠 가치 실천 주역자 선언을 한 것에 이어 스포츠 지도사 대신 스포츠 가치 실천 지도자로 명칭을 바꾸길 제안하는 스포츠 에세이를 집필했다. 스포츠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직업의식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신 ‘송강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동서대 체육학과 교수 송강영입니다. 올해로 21년째 재직 중이며 체육학과 교수들 중 가장 원년 멤버입니다.

Q. 스포츠 에세이에서 ‘스포츠 지도사’를 ‘스포츠 가치 실천 지도자’라고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에세이를 쓰셨는데 집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A. 선수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뱃속까지 체육인으로 살아왔는데 체육계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계에 일어나는 병폐들, 체육기관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개선의 여지가 없어져야 하는 것에 수백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의미 없이 던져진 명칭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이 전술, 기술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데 학교도 공부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듯이 체육에서 기술은 일부분일 뿐이지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의식을 바꿀 수 없으니 ‘스포츠 가치 실천’이라는 명칭을 통해 스포츠 가치를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Q. 스포츠 가치 실천 지도자로서 명칭이 바뀐다면 어떠한 효과(파급)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A.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도 고심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에 책임 지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칭 하나만 변경해도 체육계에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정성, 페어

플레이, 스포츠맨십, 배려, 경쟁, 투쟁 등 스포츠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는 책임감을 심어주고 명칭이 가진 무게감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선수로 활약한 적도 있으시고 많은 체육협회에 몸담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스포츠 가치 실천 지도자 에세이를 쓰게 된 계기에 영향을 준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A. 여러 가지 일들이 영향을 주었지만 하나를 뽑는다면 체육 인재육성재단 해체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논란이 되었던 K스포츠 재단이 당시 제가 이사장을 역임 중이던 체육 인재육성재단을 해체시키고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스포츠 가치 실천이 실생활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Q. 스포츠 가치 실천 주역자 미투 운동을 진행하셨는데 이를 실천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A.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취지로 진행된 운동이라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체육인들이 푸대접을 받는 이유는 잘못되어 있는 관행들, 행동들 때문인데 이를 고치고 스스로의 지위를 확보하자는 일인데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학교를 넘어 세계적인 운동으로 펼쳐 IOC를 흔들만한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우리 대학교 체육학과 학생들과 서울대학교 축구부까지 이루어지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 스포츠 가치를 언급하셨는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스포츠 가치란 무엇입니까?

A. 스포츠 밖,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가치라 생각합니다. 축구에서 선수가 넘어지면 불을 아스시킵니다. 유리한 상황이지만 남의 부당함을 이용하는 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페어플레이는 경기장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정 의 의원 연대 등의 사건들을 보면 공정성, 즉 페어플레이 정신이 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소위 말하는 선진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포츠 가치가 경기장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스포츠 가치 실천’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지어졌던 것입니까?

A. 스포츠에는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공정성 등 우리가 익히 아는 가치가 숨어 있는데, 스포츠의 핵심가치는 스포츠 가치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포츠 가치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스포츠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스포츠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 끝에 ‘스포츠 가치 실천’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스포츠인의 빛깔과 향기에 걸맞은 이름을 불러준다면 시대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앞장서는 화사한 꽃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Q. 스포츠 가치 실천 지도자의 길을 걷거나 걸어갈 후배와 제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서 했던 말과 같습니다. 스포츠 지도사로 알려져 있어 건강, 기술만을 위해서 지도하는 것처럼 짧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스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은 스포츠 가치가 여기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배려,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을 숭선수범하고 협동심을 갖고 노력하고 인내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것이고 스스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하지만 누군가 시작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은 수습기자 yamcom10@gmail.com

■ 6·25전쟁을 겪으신 할머니 인터뷰-경주에 거주하시는 86세 이동희 할머니

# 전쟁이라는 큰일을 겪고

## 아직 기억이 생생하다는 이동희 할머니와의 인터뷰



▶ 이동희 할머니 모습



▶ 총 맞은 자국

이동희 할머니는 저의 외할머니이자, 6·25를 겪으신 분 중 한 명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우리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누군가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아직 이 땅에서 그 기억을 생생히 안은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오늘 그분들 중 이동희 할머니를 만나, 그때의 기억을 들어보려고 한다.

Q.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에 살고 있는 1934년생 이동희라고 합니다.

Q.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25 당시 나이는 몇 살이었으며, 어디 살고 계셨습니까?

A. 14살쯤이었으며, 그때도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리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고 어머니와 6남매인 저희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Q. 전쟁이 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으며,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A. 워낙 시골이라 넓은 들판을 하나로 쓰면서 거기가 같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옆집에 살던 사람들이 피난 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여, 6남매와 제 어머니와 함께 필요한 짐만 알뜰 싸서 어머니는 막내를 업고 오빠와 언니 동생들과 서둘러던 기억이 납니다.

Q. 6·25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A. 그때 당시 경주 내에서 전쟁이 크게 일어났던 터라 저희 가족은 멀리 나가지는 못하고 제 살았던 현곡리라는 곳에, 농사를 짓는 넓은 들판에 뚫어 있었는데 그 틈에 굴을 파놓고 가족이 지냈었습니다. 굴에서 이동을 하려는데 제가 총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나와서 저를 부축하였고 그 도중에 북한군이 오빠를 끌

고 가 버렸고 그때 마침 남한군이 도와주어 가까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2~3살이 된 남동생을 어머니가 업고 저와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갔을 때 사람이 넘쳐났었고, 발 디딜 틈이 없어 늘러 서 있는 저희에게 군인이 조금만 기다리란 차가 한테 와서 (당시) 안경병원으로 데려다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시 제 남매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저를 안면이 있는 아저씨에게 맡기고, 저는 많은 환자들과 차를 타고 안경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치료도 잠시 안경도 위험해져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날은 어두워졌고 당장 갈 수 없었기에 일단 아저씨를 따라 역장인, 아저씨 지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은 대로 저는 어머니와 약속했던 곳을 가기 위해 경주 시내에 사는 외할아버지를 만나기로 하였고 외할아버지 댁에 도착하여 사정을 이야기하니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장소를 가는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가르쳐준 길로 따라가니 다시 어머니와 헤어졌던 오빠와 저희 남매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Q. 당시 분위기는 어떠하였습니까?

A.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굴 안에 들어가 있게 하여서 저는 잘 보진 못하였지만 영화, 드라마 보다 더 참혹하였고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 병원을 가라고 도와준 남한 군이 경악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를 포함한 다친 사람들 병원을 가지 못하여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었고 저는 그 상황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Q. 오빠는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까?

A. 한창 북한군이 경주를 공격해 오고 있던 지라 자기들도 짐꾼이 필요했을 겁니다. 오빠는 짐꾼으로 지랑도 못한 채 잡혀갔습니다. 거기가 당시 정승이었는데 정승에 친척 집인지 오빠의 지인 집인

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거기로 도망쳐 나와서 살다가 나중에는 저희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전쟁을 겪을 때 심정이 어떠하였습니까?

A. 어릴 때 겪었던 터라 심정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극한의 상황이었고 잘못했다간 죽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긴장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와중 북한군이 총을 메고 무리로 서 있던 모습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슬플 겨를도 무섭다는 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Q. 전쟁이 끝난 후 고향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A. 저희 집은 무사하였지만, 들판의 농작물은 밭도 못 하고 이웃의 집은 여기저기 부서지고 없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워낙 시골이라 경주의 시내처럼 피해가 가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허망함과 슬픔이 묻어났었습니다.

Q. 6·25를 어떤 날로 기억하게 되었으면 하십니까?

A. 지금은 그저 신기한 얘기로운 들릴 것입니다. 역사에 관심을 갖고 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갖는 것이 저도 그렇고 전쟁을 겪지 않은 지금 세대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Q. 인터뷰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어린아이였을 때여서 기억이 잘 안 난데 어떡하지,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이때의 기억을 이야기해 주곤 했는데 새삼 기억하니 제 형제들과 어머니가 보고싶기도 합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영 수습기자 kimay6240@gmail.com

#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에스더



▶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모르드개

▷ 사진출처 - 네이버 미술백과

하나님을 향한 동감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시다.

## “에스더의 배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는 당시 아하수어로 왕(주전 486년~465년) 바사(페르시아)의 당시 수도였던 수산의 궁전 수산궁을 배경으로 한 성서 구절이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의 페르시아 이름이다.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은

매화(도 금양과의 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이다. (에 2:7)

당시 바사(페르시아) 제국은 중근동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린 신흥 패권국으로서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헬라의 이오니아(현재의 터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남쪽으로는 페르시아 만, 북쪽으로는 매대 왕국에 이르기까지

지 거대한 영토를 가진 고대 국가였다.

티그리스 강 연안 도시 님불과 수산 등지에는 당시 유대 포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유대 포로 민중 하나인 모르드개는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의 사촌이지만 에스더의 부모가 죽자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보호자가 되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다고(에 2:7)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 수어로 왕은 축제에서 술을 마시다가 왕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자(에 1:11) 왕비를 부른다. 그녀가 나타나기를 거부하자, 왕은 분노하여(에 1:12) 최측근 자문 간들과 상의하여(에 1:13~15) 결국 왕비 와스디를 폐위(에 2:17) 시킨다.

새로운 왕비를 위임 시켜야 한다는 자문 간들의 의견에 동의한 아하 수어로 왕은 각지방의 모든 아름다운 여성 들을 수산 궁으로 모이도록(에 2:3) 명한다. 모르드개는 극진한 보살핌으로 아름답게 자란 에스더 또한 아하 수어로 왕의 명으로 인해 수산 궁으로 가게 된다.

왕의 명으로 수산 궁으로 가게 된 여성들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후궁 담당 내시의 통제 아래 몸을 치장하며(에 2:12) 지냈다. 많은 후궁들이 아하 수어로 왕 앞에서

지만 아하 수어로 왕은 자신 앞에 선 후궁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에 2:14) 않았다.

마침내 아하 수어로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가 차레가(에 2:15) 되었다. 에스더는 겸손하게 내시가 지시한 것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치장하지(에 2:15) 않았다. 하지만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다고(에 2:15)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 수어로 왕이 7년 10월 에스더는 황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겸손 함에 아하 수어로 왕은 에스더에게 면류관(영예와 존귀를 상징하는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로 세우게(에 2:17) 된다.

## “유대인을 전멸 시키려는 하만의 음모”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 아하 수어로 왕은 하만이라는 인물에게 국무총리로(에 3:1) 임명한다.

모르드개는 고관 대신이었던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분노 느낀 하만은 아하수어로 왕이 12년 유대 민족을 멸망시킬 계획을 수락하기 가장 좋은 때를 제비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여 그 날 짜는 아하 수어로 왕이 12년 12월 13일로

결정하게 된다.

하만은 왕에게 고하여 전 제국의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모르드개는 이것을 먼저 알아채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여, 왕에게 간청해서 이 명을 거부 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말을 듣고 주저했다. 그 이유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임의로 나아가는 경우, 왕이 만나기를 거부하면 죽음을 당하는 당시 법도 때문이었다.

에스더는 전 유대인들에게 삼 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본인도 같이 금식한 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며 왕에게 나아간다. 아하 수어로 왕은 에스더의 미모에 에스더를 찾게 되고, 근심을 보이는 에스더에게 모든 명을 다 들어 주겠다고 약속한다.(에 5:2~3)

에스더는 왕을 위한 잔치를 마련할 테니 왕에게 하만을 조청하도록 간청하고, 하만과 함께하는 잔치에 자신의 간구를 표창했다고 말한다. 왕을 위해 에스더가 마련한 두 번째 잔치날 하만 앞에서 하만이 왕비를 포함한 모든 유대 민족을 멸망하려는 것을 아하 수어로 왕에게 고하였다.

놀란 하만은 에스더 앞에 엎드렸으나, 왕은 그녀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더욱 진노하게 된다. 이에 하만은 처형되

고(에 7:9~10), 하만의 모든 소유는 에스더에게 주게 된다. 유대인 학살의 명을 거두도록 청하고, 모르드개(에스더의 사촌)에게 관련 내용의 전권을 위임한다. 그들은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스승을 받아내고, 위해 하려는 자를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조서를 각지에 내리게 된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던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혐오 세력을 몰아내게 되었다.

왕의 큰 대신이었던 하만이 에스더의 사촌이자 보호자인 모르드개를 공격하고, 왕국의 모든 유대인을 죽일 권한을 받는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계획을 뒤엎고, 모든 유대인이 그 속력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 이야기는 부림절(Purim)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 꾀한 유대인 절멸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축제)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고, 유대인의 속력을 처벌한 날로 삼아 기념한다.

에스더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때 역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한다.

자료출처 : 성경 정성환 수습기자 dkfd12372@gmail.com



#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함께하는 우리는 더 강합니다  
- 코로나19 극복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6. 19(금)
- 응모대상 : 기타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 2020 보훈공단 공공성 강화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년. 06. 21(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대한민국국제 관광 박람회사무국 KITS 라이트업 서포터즈5기 모집
- 접수기간 : ~2020. 06. 21(일)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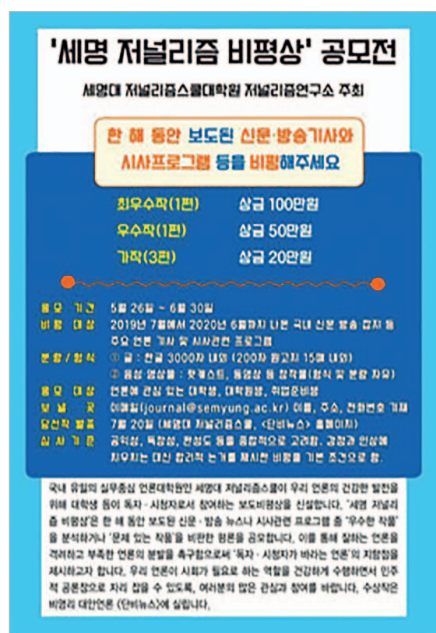
- 아르코·대학교예술극장 온라인 기자단 5기 모집
- 접수기간 : ~2020. 06. 21(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기타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AIA 캐치프레이즈 & 디자인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6. 26(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디자인/캐릭터/웹툰, 네이밍/슬로건, 예체능/미술/음악



- 2020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 가계 찾기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6. 28(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네이밍/슬로건



- 세명 저널리즘 비평상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6. 30(화)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기타
- 공모분야 : 문학/글



- 제1회 애드들 대학생 영상광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6. 30(화)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 2020 LMO 안전관리 콘텐츠·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6. 30(화)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영상/UCC/사진, 예체능/미술/음악



- 제3회 노인인권 사진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7. 03(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 2020 상상패션런웨이 의상 디자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7. 06(월)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독백 대회
- 접수기간 : ~2020. 07. 18(토)
- 응모대상 : 대학생, 청소년
- 공모분야 : 문학/글/시나리오, 예체능/미술/음악

## 잠깐! 상식퀴즈

### 정보

단오는 한국 명절의 하나로 음력 5월 5일이다. 단오의 단(端) 자는 첫 번째를 뜻하는 글자이며, 오(午)는 다섯을 뜻하므로 초닷새(음력 5월 5일)를 칭한다. 더운 여름을 맞이 전의 초하(初夏)의 계절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이기도 하다. 단오는 일명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午節), 단양(端陽), 오월절(五月節)이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월과 일이 모두 홀수이면서 같은 숫자가 되는 날은 생각이 넘쳐서 좋은 날이라 생각하여 대개 명절로 정하고 이날을 즐겨왔다.

단오에는 여러 풍속 및 행사를 즐긴다. 창포에 머리 감기, 속과 익모초 뜬기, 창포부처 만들어 붙이기, 단오장이라 하여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 삼아 머리에 꽂기 등의 풍속이 있다. 또한 그네뛰기, 씨름, 활쏘기 같은 민속놀이를 즐긴다. 민간행사로는 단오제나 단오굿을 하기도 하였다. 그중 '강릉 단오제'가 가장 유명하다.

민간에서는 이날 창포 이슬을 받아 화장수로도 사용하고, 창포를 삶아 창포탕을 만들어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소담하고 윤기가 있으며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단오가 되면 곧 더위가 시작하므로, 입금이 시종들에게 부채를 하사했던 풍속이 있다.

### Hint

단오는 매년 음력 5월 5일로, 더운 여름을 맞이 전 초하의 계절, 모내기를 끝내는 시기.

### Q&A

Q. 올해의 단오는 양력으로 언제일까?

A.



화면,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거나 010-2859-0974로 연락주세요.  
\* 6월 29일까지 퀴즈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6월 3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과 : \_\_\_\_\_  
• 학년 : \_\_\_\_\_  
• 이름 : \_\_\_\_\_  
• 연락처 : \_\_\_\_\_